

‘부산오픈 준우승’ 홍성찬 “첫승 기세 몰아 우승 도전”

테니스 단식



홍성찬(세종시청)이 지난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ATP 광주 오픈 챌린저 2024 32강에서 일라 마르첸코(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게임을 떠난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32강서 일라 마르첸코 2-0 승
16·17·19·22년 첫 경기서 고배
16강서 시마부쿠로 쇼와 대결
“부산 분위기 광주서 이어갈것”

2024 ATP(프로테니스협회) 비트로 부산오픈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랭킹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국가대표 홍성찬(세종시청)이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우승을 노린다. 4전 5기 끝에 빛고을에서 첫 승을 거둔 만큼 기세를 몰아보겠다는 다짐이다.

홍성찬은 지난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32강에서 일라 마르첸코(Ilya Marchenko·우크라이나·239위)를 2-0(6-3, 6-2)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올랐다.

홍성찬은 32강 경기를 마친 직후 공식 인터뷰에서 “부산오픈에서 결승까지 힘들게 경기를 하고 광주로 넘어와 바로 경기에 임했다”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분위기를 잘 이어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주 부산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ATP 단식 랭킹을 172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테니스 선수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홍성찬은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인 부산오픈을 치르면서 테니스 선수로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준우승이라는 성적까지 거두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오픈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홍성찬은 이번 광주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성적과 함께 수비적인 선수라는 인식을 공격적인 선수로 바꿔보고 싶다는 의욕도 나타냈다.

그는 “목표는 모든 시합이 우승이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오픈도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코트에서 수비적인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데 공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홍성찬이 32강에서 맞붙었던 상대인 마르첸코는 2016년 ATP 단식 랭킹 49위까지 올랐던 강자다. 그랜드슬램(4대 메

이저 대회)인 2016년 US오픈에서는 16강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그런 상대에서 브레이크 3-0, 더블폴트 2-5 등 압도적 경기력으로 2016~2017년, 2019년, 2022년의 4전 5기 끝에 광주오픈 첫 승을 챙겼다.

그는 “모든 시합을 확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릴 때부터 광주오픈에서 한 번도 이겨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에 첫 승을 하게 됐다. 코치와 아내도 정말 좋아했고 저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우승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성찬은 단식에만 출전하면서 단식 16강 일부 경기와 복식 16강이 치러지는 17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간단한 훈련으로 컨디션을 유지한 뒤 18일에 출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산오픈에서 결승까지 치르고 온 그에게는 끝맛 같은 휴식이다.

그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할 때도 아니다. 이제 16강에 올랐을 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없이 매 경기 때 포인트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 시리즈’

주말 NC와 홈 3연전서

KIA타이거즈가 19~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 주말 3연전을 ‘아이엠프 스튜디오(IAB STUDIO) 브랜드 데이 시리즈’로 치른다.

KIA는 이번 시리즈에 특별 유니폼(사진)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KIA는 지난 시즌 아이엠프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유니폼과 의류를 출시하며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시리즈에 선보이는 특별 유니폼은 팀 상징인 검은색과 노란색을 주색상으로 사용해 디자인했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을 활용해 일체감을 강조했고 노란색을 포인트로 활용해 호랑이의 강렬함을 표현했다. 또 KIA와 아이엠프 스튜디오는 이번 시리즈에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해 ‘아이엠프 스튜디오 타이거즈 색(IAB STUDIO TIGERS SACK)’을 선물한다.

챔피언스필드 내외부에서 I와 A, B 스텝을 찾아 본인과 함께 나온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인증하는 ‘IAB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뒤 해시태그(#KIABSTUDIO)를 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 중에도 전광판 이벤트와 응원단상 이벤트가 열린다.

승리를 기원하는 릴레이 시구 이벤트도 진행된다. 20일 경기는 장애인들의 날을 맞이해 이민우씨 부자가 시구와 시타에 나선다. 21일 경기는 그룹 펜타곤(PENTAGON)의 메인 래퍼 우석이 승리 기원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광주 출신인 우석은 경기 중 이닝 교대 이벤트에도 참가해 팬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동강대 야구, U리그 3연승 도전

오늘 호원대와 3차전 격돌

동강대 야구가 ‘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3연승에 도전한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 함평야구장에서 호원대와 U리그 E조 3차전을 갖는다.

동강대는 지난 4일 U리그 개막전에서 송원대에 2-1 역전승에 이어 5일 세한대와 2차전에서는 13-0, 5회 콜드게임으로

이겼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2연승을 달린 동강대는 E조 선두에 올라있다.

동강대는 올해 U리그에서 송원대, 세한대, 목포과학대, 원광대, 조선이공대, 청운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홍익대 등 9개 팀과 조별예선을 갖고 왕중왕전 진출을 노린다.

동강대는 18일 호원대와 경기를 가진 뒤 19일에는 원광대와 4차전을 치른다.

최동한 기자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이 17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황선홍호, UAE 꺾고 파리 올림픽 도전 순항

최종예선 1차전… 1-0 승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에 도전하고 있는 황선홍호가 이영준의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를 꺾고 2024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은 17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파리 올림픽 직행을 위해 3위 이내에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황선홍호는 양현준과 김지수, 배준호 등 주축 자원들의 차출 불발에도 첫 경기 승점 3점을 확보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19일 중국과 조별리그 2

차전에서 승리한다면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된다.

한국은 전반부터 UAE를 몰아붙였다. 전반 13분 이강희가 상대 패스를 끊어낸 뒤 먼 거리에서 무회전 슈팅을 때렸으나 칼레드 타위드 골키퍼에 막혔고, 4분 뒤 황재원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불을 안재준이 강상운에게 건넸고, 강상운이 힐 킥으로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VAR) 판독 결과 세컨볼 상황 안재준의 오프사이드가 지적됐다.

전반 내내 주도권을 잡고도 선제 득점에 실패하자 황 감독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영준과 강성진을 투입하고 안재준과 홍시후를 불러들이며 공격을 강화했다. 교체 효과는 곧장 나타났다. 후반 10분 조현택의 크로스를 이강희가 머리로 내리찍었지만 골대를 살

짝 빗겨나갔고, 후반 23분에는 엄지성이 크로스를 머리로 방향만 바꿨지만 높이 뜨며 득점이 무산됐다.

황 감독이 후반 28분과 32분 홍윤상과 이태석을 투입하며 연달아 교체 카드를 꺼낸 뒤 한국은 후반 정규시간 막바지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강상운의 크로스를 강성진이 머리로 골망을 갈랐으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VAR 교신 후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이 12분 주어진 가운데 한국은 극적인 선제골이자 결승골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시간 4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태석이 올린 공을 이영준이 강력한 헤더로 마무리했다. 황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하며 승리를 만든 순간이었다.

한규빈 기자